

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리플릿: 시마바라 대변

1792년에 발생한 시마바라 대변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화산재해였습니다. 지진과 암설류로 인해 시마바라 마을은 극적으로 바뀌었고, 이 사건의 흔적은 지금도 경관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라치코

시라치코는 마유야마(819m)가 붕괴되면서 땅의 갈라진 틈에서 샘물이 흘러넘쳐 단시간에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일 4만 톤의 물이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넛타 단지 제1공원

언덕 중턱 근처에 있는 조용한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멋진 시마바라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유야마의 험난한 벼랑과 먼바다에 떠 있는 많은 섬들에 남아있는 1792년 지진재해가 할킨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들은 산에서 무너져 바다로 흘러 들어간 토사 덩어리입니다.

지치부가우라 공원

이곳에서는 마유야마의 붕괴로 생긴 섬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얇은 여울은 많은 토종 물고기들에게 최적의 서식지가 되었고, 새로운 해안가의 경관은 숨겨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간조시에는 인근 해안에서 과거 어업에 사용되었던 석조 유구를 볼 수 있습니다.